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

The Grapes of Wrath

글 | 이 광 _ 계명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klee179@kmu.ac.kr

존 스타인벡(1902~68)은 190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샬러너스에서 출생하였다. 어릴 때 즐겨 읽은 책은 성경과 ‘아서왕의 죽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훗날 그의 작품 속에 성경의 인용과 사고방식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그런 영향으로 보인다. 1920~26년에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에 있는 스탠퍼드대학교를 간헐적으로 다녔으나 학위는 받지 못했다. 자신이 쓴 책이 성공을 거두기 전에는 작품을 쓰면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 속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그의 작품으로는 ‘토르티야 대지’ (1935), ‘의심스러운 싸움’ (1936), ‘새양쥐와 인간’ (1937), ‘분노의 포도’ (1939) 등이 있다.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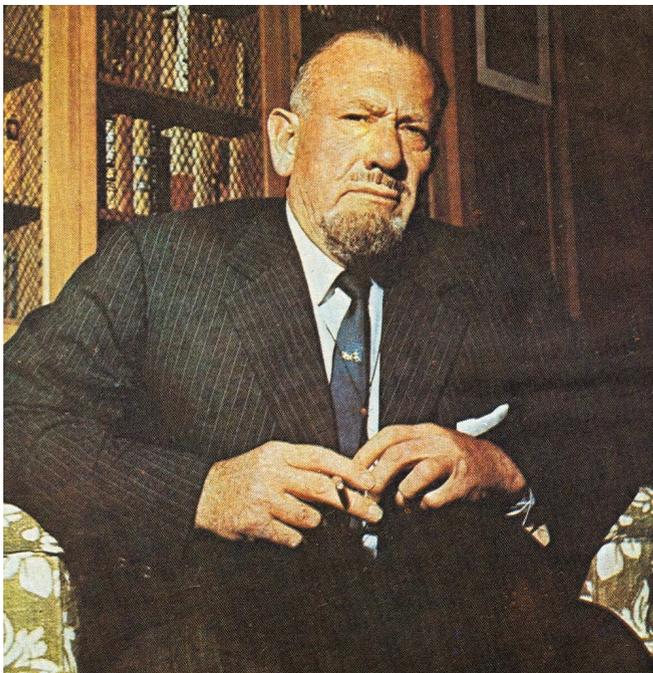
노의 포도’는 그 해 풀리처상을 받았고, 1940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는 1962년에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는 또한 제2차 세계대전중 나치 점령하의 노르웨이를 그린 소설 ‘달이 지다’ (1942)를 비롯해 인상적인 선전용 작품을 몇 편 썼으며, 종군기자로도 일했다.

풀리처상·노벨문학상 수상, 영화로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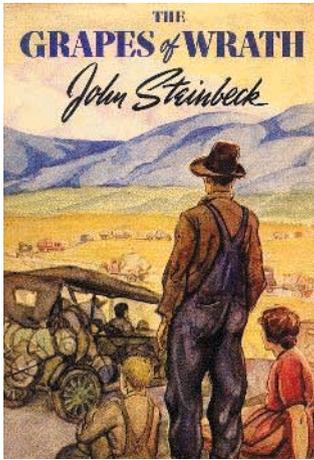
전쟁이 끝난 후에도 ‘통조림공장의 줄’ (1945), ‘진주’ (1947), ‘제멋대로 가는 버스’ (1947), ‘밝게 타오르다’ (1950), ‘에텐의 동쪽’ (1952), ‘불만스러웠던 겨울’ (1961) 같은 작품을 내놓았다. 비평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후기 작품은 모두 초기 작품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는 흔히 미국의 현대 서사시라고 불린다. 천재와 자본주의에 농토를 빼앗긴 오클라호마 농민들의 고통스런 삶을 그린 이 소설은 또 흔히 약속의 땅을 추구하는 인간의 영원한 욕구를 상징하는 성서의 ‘출애굽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스타인벡은 ‘새양쥐와 인간’을 희곡화한 직후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여 시카고를 경유, 오클라호마주로 들어가 국도 66번선을 서쪽으로 달려서 캘리포니아로 돌아왔다. 그때 그는 66번 도로에서 ‘오우키(오클라호마 동부를 뜻하는 경멸적인 호칭) 노동자 무리를 만나 그들의 실태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보았고, 캘리포니아주 안에 있는 그들의 캠프로 찾아가서 일일이 자세한 메모를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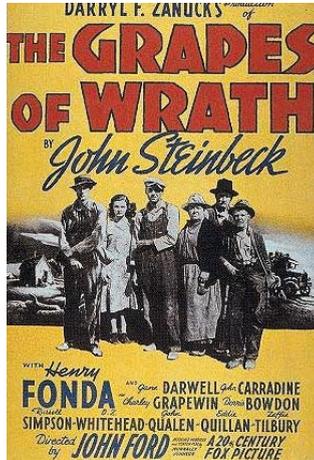
‘분노의 포도’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체험과 조사를 바탕으로 구상된 작품인데, 그 배후에는 ‘오우키 집단’을 낳게 한 1930년대 특유의 역사적 사실이 있고, 그 시대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다. 1930년대는 1929년의 경제공황으로 세계적 규모의 불황이 엄습한 시기에 해당하는 연대였다. 미국의 총노동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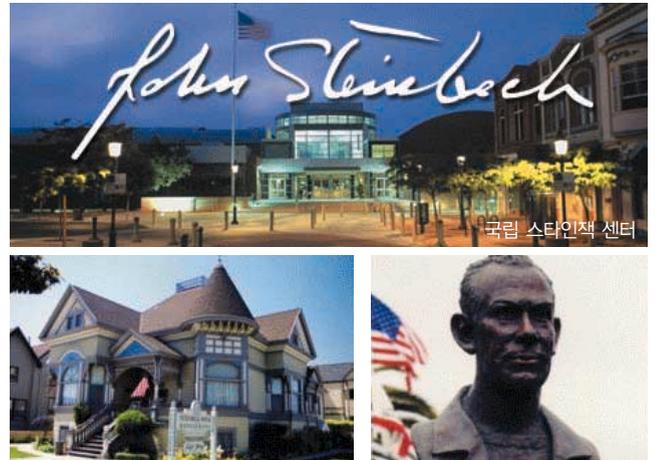
1962년 10월 25일 뉴욕 노벨문학상 수상 후 기자회견에서의 ‘존 스타인벡’



'분노의 포도' 초판 표지(1939)



존 포드가 감독한 영화 '분노의 포도'의 포스터



캘리포니아주 샬러너스에서 스타인벡이 17세까지 살았던 집(왼쪽)과 캘리포니아주 몬터리에 있는 흉상

천만 명이 실업 상태에 놓여 기아나 다름없는 생활을 빈민굴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 상황과 살벌하고 음울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씌어진 '분노의 포도'는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작가 스타인벡의 경험과 재능이 집중되어 박력과 다면성을 지닌 다채롭고 힘찬 대장편을 이룩한 것이다.

피폐한 '오우키' 삶, 사실적으로 작품에 표현

1933년부터 약 2년 동안 텍사스에서 캐나다 국경에 이르는 중서부 대평원에는 맹렬한 먼지바람과 가뭄이 휩쓸어 모든 밭을 일시에 모래밭으로 바꾸어 놓았다. 남서부의 대곡창인 오클라호마주 역시 메마른 먼지 분지로 변해 버렸다. 흉년이 연거푸 들었으니 농민들은 살아갈 방도가 막막했다. 그런데 상업 자본주의에 혈안이 된 대토지 회사들은 은행을 끼고 기계 농사법을 도입하여 트랙터를 들이대고 소농의 논밭과 집을 마구 밀어붙였다. 이러한 친재지변과 거대한 자본에 쫓긴 조드 일가족은 조부가 장만하고 아버지가 대를 물려 개간했던 토지를 버리고, 농장 일꾼을 후하게 대접한다는 모 집 광고 쪽지 한 장에 속아 가재를 모두 팔아 고물 트럭에 싣고 무턱대고 서쪽 캘리포니아를 찾아 길을 떠난다. 11명의 식구가 이동하다보니 앓을 자리조차 없어 짐이라고는 겨우 담요 몇 장과 밥그릇 몇 개 밖에는 신지 못했다. 갈 길은 2천 마일, 그 머나먼 초행길을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 온갖 고생을 하며 희망을 찾아 간다. 가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음에는 할머니가 지쳐서 숨을 거둔다. 무일푼 거지나 다름없는 그들은 노인을 길가에 아무렇게나 파묻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 하나는 도중에 가족과 헤어져 제 갈 길을 떠난다. 그러나 그렇게 닿은 희망의 땅 캘리포니아는 그들을 기다리는 천국도 아니었다.

이미 25만 명을 헤아리는 땅 잃은 부랑 농민이 중부 각지에서 구름처럼 모여 와서 '오우키'라는 경멸적인 이름으로 천대를 받고 있었다. 노동력이 남아돌아 품삯은 대농장주의 마음대로 깎는 판이었다. 조드 일가족들도 온 가족이 나가 진중일 쉬지 않고 일을 해도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였다. 그나마도 그런 일자리가 걸리면 다행이었다. 단체 항쟁을 해보려 해도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여 터무니없이 박해를 하는 바람에 그럴 수도 없었다. 이렇게 시달리는 오우키들의 굶주림은 차츰 분노로 변해 갔다. 캘리포니아의 비옥한 벌판에 포도는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지만 이들 이주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도움은커녕 이주 농민들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무르익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 소설이 발표되자 한때 '사회 문제를 들고 일어난 항의 문학이다', '좌익이다'라는 소리가 드높게 일었다. 그러나 이 소설 전편을 감싸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형적인 휴머니즘이었다. 그가 내세운 서민의 생활을 이루는 원동력은 원시적 생활력이며, 그가 사랑한 것은 그들의 생활 전체였지 사회의식만으로 그들의 생활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 작품이 리얼리즘 소설로 성공한 이유는 바로 이 점이었다.

'분노의 포도'에서는 성서의 한 구절을 암시한다. 스타인벡은 청교도인 하우가 쓴 남북전쟁 때의 군가,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에서 직접 제목을 생각해냈던 것이다. 포도는 인류와 가장 가까운 작물의 하나였다. 성서에서도 창세기에서 요한복시록까지 포도가 나온다. "그래서 천사는 땅 위에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큰 분노의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 던져 넣었습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요한복시록 14:19).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서 터진 포도액이 발효하면서 부글부글 거품이 이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분노로 표현한 것이다. ㉓